



영화 '바다로 간 아이들' 제작 모습.



영화 '바다로 간 아이들' 스틸컷.

<문화공동체 아우름 제공>

아이들의 시선으로 '코로나 블루'를 보다

광주 최초 어린이 독립영화 '바다로 간 아이들'
내일 광주독립영화상영관서 관계자 시사회
코로나19로 아픔 겪는 일상 스크린에 담아내

광주 지역 최초로 어린이들이 직접 주인공으로 참여한 독립영화 '바다로 간 아이들'이 제작돼 눈길을 끌고 있다. 영화 '바다로 간 아이들'은 기아 광주공장과 초록우산이 후원하는 지역의 문화 예술 교육 전문단체인 문화공동체 아우름이 주관, 운영하는 사회공헌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기아챌린지 어린이 뮤지컬' 팀의 2020년 교육프로그램 일환으로 제작됐다.

아이들은 코로나19 상황 속에 영화 배역에 따라 모든 과정을 온라인을 통해 교육받았으며, 영화제작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독립영화를 제작, 배급해 온 '필름에이지' 대표 윤수안이 맡았다. '바다로 간 아이들'의 시나리오를 윤수안 감독과 제작진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직접 아이들을 만나 코로나 시대 아이들이 맞닥뜨린 현실과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들을 직접 소통, 스토리텔링하며 성장드라마 형식으로 25분 영화로 완성

했다. 영화는 코로나 이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일상에 모두가 지쳐가고 있는 현대 사회를 그대로 보여준다. 주인공 은채는 손님이 끊긴 식당을 운영하는 엄마의 돌봄을 거의 받지 못한 채 방치된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은채와 비슷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고립된 아이들, 집중력이 떨어지는 온라인 수업과 넘쳐나는 에너지를 분출할 수 없는 답답함에 힘

들어하는 미래 세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영화에 출연하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에너지를 표출할 수 있도록 뮤직비디오 형식의 댄스도 영화에 가미해 완성도를 높였다. 기아챌린지 어린이 뮤지컬팀 관계자는 "지난 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주 모여서 연습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됐다"며 "그 대안으로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을 통해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만나 춤, 노래 연기를 배웠다. 비대면 교육의 한계가 있었지만 아이들이 직접 참여한 영화를 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렇게 온라인 교육의 한계를 극복할 방안을 고민하던 그들이 생각해 낸 방안은 바로 '영화 제작'이었다.

독립영화 '바다로 간 아이들'은 오는 23일 오후 3시 광주독립영화상영관에서 관계자 시사회를 진행한다. 앞으로는 공식적인 극장 배급을 통해 영화를 많은 관객에게 선보일 예정이며, 올 한해 열리는 다양한 국내 영화제에도 영화를 출품할 계획이다. 한편, 2016년 창단된 '기아챌린지 어린이 뮤지컬' 팀은 광주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된 어린이 중 춤, 노래, 연기 등 예술 분야의 재능이 뛰어난 어린이들을 매년 모집해 운영하고 있다. '기아챌린지 어린이 뮤지컬' 팀은 창단해온 2016년, 창작뮤지컬 '그래도 괜찮아'를 선보인 바 있으며, 2019년에는 창작뮤지컬 '내가 가는 길'을 무대에 올려 호평을 받았다. /김다기자

광주관광재단 마이스 분야 지역인재 육성 나선다

자격증 응시료 지원까지 'MICE아카데미' 운영...28일까지 모집

광주관광재단이 국제회의 및 전시 산업인 MICE 분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온라인 강의인 '광주 MICE아카데미' 컨벤션기획사 2급 준비반을 개설해 지역 소재 대학 재학생, 취업준비생 30명을 선발하기 위한 본격적인 수강생 모집에 나섰다. 수강생은 오는 28일까지 광주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모집하며, 선발된 수강생은 2월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컨벤션기획사 2급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강좌를 온라인으로 배우게 된다. 특히 수업 교재 및 오는 3월7일 진행예정인 컨벤션기획사 2급 자격증 응시료까지 지원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로 인한 청년 취업난 극복에 발판이 될 전망이다. 광주관광재단은 지난 2019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해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한 삼무지구 일대를 국제회의의 특화 지구

인 '광주마이스파크'로 지정, '광주 MICE아카데미'와 더불어 지역 기업 대상 청년 인턴 지원 등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성숙 광주관광재단 대표이사는 "광주마이스파크는 광주의 컨벤션 산업의 기술, 인재, 행사가 집중된 특화지구"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그 인재들이 지역 기업을 이끌어가며, 기업이 특화지구에서 우수한 국제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다기자



적벽가를 들으며 군사의례를 둘러보다 영상 스틸컷

온라인으로 판소리 감상하며 '군사의례' 특별전 즐기세요

국립고궁박물관 특별전 '조선왕실 군사력의 상징, 군사의례'를 판소리 적벽가와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영상이 공개된다. 국립고궁박물관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적벽가) 김일규 보유자가 특별 전시실에서 공연한 실황을 담은 '적벽가를 들으며 군사의례를 둘러보다' 영상을 20일부터 온라인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특별전 개막을 기념해 전시 유물과 판소리 간의 조화를 통한 우리 문화

유산의 다채로움을 전달하고자 기획됐다. 영상은 1부 '자용할 쓰는 대목'과 2부 '적벽가 불싸움'으로 구성됐다. 김일규 보유자가 적벽대전에서의 긴박한 전투 상황을 힘 있는 소리로 표현한 두 대목을 전시유물을 담은 장면과 함께 즐길 수 있다. 영상은 고궁박물관 (<https://youtube.com/gogungmuseum>)과 문화재청 (<https://youtube.com/chlulu>)에서 볼 수 있다. /연일뉴스

광주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예방교육' 무료 지원

광주여성가족재단이 '2021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연중 무료로 지원한다. 젠더폭력예방교육 분야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과, 디지털 성범죄 및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중에서 선택가능하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전형적인 분야이외에도 최근에 새롭게 발생한 디지털 성폭력 등 폭력유형에 따른 교육

수요를 반영해 통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지역에서 활동하는 60여명의 전문강사가 직접 찾아가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교육대상은 운수·건설 등 민간사업체, 문화·예술·스포츠계, 사회복지시설, 학부모, 장애인, 이주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젠더폭력 예방교육의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설 계획이다. 학교나 공공기관 등 의무대상교육기관은 지



광주여성가족재단 '2021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중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 현장 모습. 원에서 제외된다. /김다기자

안마의자 헬스기구 튜닝

당신의 건강한 Action
꿈을 향해 내딛는 첫 발걸음,
가슴 벅찬 도전과 멈추지 않는 땀방울,
당신의 건강한 Action을 위해
실버랜드가 당신의 열정을 지켜가겠습니다.

태허런닝머신·다이나포스 - 웨이트기구 광주전남지사 헬스 & 실버랜드

목포 / 순천 / 여수 대리점 모집

대한민국 헬스기구 대표 브랜드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전문점

www.slhealth.co.kr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지번 : 백운동 644-33) ☎ 062)653-4141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83(주월동) ☎ 062)651-9944~3

